

“시리아 IS 본거지 공략 때 사망한 민간인 수 미군 발표의 5배”

극단 이슬람주의 조직 이슬람국가(IS)의 시리아 본거지인 동부 락카 탈환 작전을 펼치면서 미군 주도의 연합군들이 2017년 6월-10월 실시한 공습으로 민간인 1,600여 명을 사망했다고 국제 인권 단체 앰네스티가 주장했다.

지난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IS가 시리아 동부를 완전 장악하고 이라크 서부를 급습한 직후인 2014년 8월부터 미군은 IS진지에 공습을 시작했다. 이라크의 IS 본거지 북부 모술을 이라크군이 2017년 초 탈환하자 미군은 쿠르드족 시리아 반군을 앞세워 시리아의 락카 탈환에 나서 그 해 말 IS 축출에 성공했다.

연합군은 락카 탈환 작전의 공습으로 민간인 318명이 희생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민간인 살상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으며 무장 분쟁에 관한 교전 원

칙에 의거해 공격 지침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25일 앰네스티 인터내셔널과 모니터 단체 에어워스는 200곳의 공습 장소를 찾아 생존자 인터뷰 등 장기간에 걸쳐 조사한 끝에 민간인 희생자가 1,600명이 넘는다는 것을 알아냈다고 말했다. 또 1,000명의 사망자 신원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인 사망 규모에 대한 축소 발언을 중지하라고 미군 등 대 IS 연합군에 촉구했다.

60여 개국이 참여한 연합군의 작전은 공습에 의존했으며 미국, 영국 및 프랑스 3개국이 대부분의 작전을 수행했다. 2014년 여름부터 2019년 3월까지 3개국은 3만4,000건의 공습을 실시했다고 BBC가 전했다. 지난달 시리아 남동부 바구즈에서 마지막 IS 잔당이 쿠르드족 반군에 의해 소탕되었고 이때도 연합군 공습이 지원됐다.

멕시코, 중미 이민 캐러밴 단속 강화

멕시코 경찰과 이민국 단속원들이 국경지대 피히야판 시외에서 수 백명의 중미 이민자들을 체포 구금해 지난 해부터 멕시코를 통과해 미국을 향하는 이민자 캐러밴에 대한 최대 단속을 기록했다.

지난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멕시코 경찰은 전날 남부 치아파스를 통과해서 미국 국경을 향해 이동하고 있는 약 3,000명의 캐러밴 가운데 꼬리 부분에 해당되는 뒤쳐진 그룹의 사람들을 목표로 기습적인 단속을 실시해 거의 500명에 가까운 캐러밴들을 여러 대의 버스에 강제로 태웠다. 이들은 이민자 수용소로 이동한 뒤에 추방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는 지난 해 첫 캐러밴이 도착했을 때에는 이를 환영했지만 수십만 명이 미국 국경에 몰리면서 통과가 지체되자 멕시코 주민들 사이에서 분노가 일어나면서 점점 냉대를 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의 이민 체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행 이민을 단속하지 않으면 국경을 영구 폐쇄하겠다는 등 위협과 함께 공식적으로 이민 행렬을 막아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이뤄지고 있다. 멕시코는 이미 국경의 이민행렬들이 미국 쪽이 아닌 멕시코 쪽에 머물면서 수속을 하도록 허용했지만, 한 발 더 나아가 사전 체포까지 시작했고 최근 이에 대해 트럼프는 환영과 축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현재 멕시코 이민국 통계로는 5,336명이 치아파스주의 이민 보호소에 머물고 있으며 그 중 1,500여 명은 추방대기자이다. 인권위 통계로는 남부 수용소들과 길 위에 있는 이민의 수는 현재 7,500명에 달한다.

멕시코에 도착한 이민자 행렬은 전에는 중미 국가와 쿠바, 아프리카 출신이 섞여 있었지만 몇 주 전부터는 주로 온두라스인들이 무리를 지어 들어오고 있다.

독일, 도시간 소득 격차 극심

독일에서 도시 간 시민들의 소득 격차가 최대 2배 이상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의 경제·사회연구소(WSI)가 독일 전역 401개 도시를 상대로 지난해 거주민의 연평균 가처분소득(총소득에서 세금이나 의료보험료 등의 비소비지출을 제하고 남아 저축에 쓸 수 있는 금액) 및 소득 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남부 슈타른베르크의 연평균 가처분소득이 3만4천987유로(약 3만 9천 달러)로 나타났다.

연평균 가처분소득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북서부 공업지대인 쾰렌키르헨으로 1만6천203유로(약 1만 8천 달러)였다.

남부의 뮌헨과 하일브론, 슈투트가르트 가 가처분소득이 높은 도시로 조사됐다. 동부의 도시들과 석탄 및 철강산업이 쇠락한 루르공업지대 도시들은 가처분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옛 서독지역의 도시 324개 가운데 284개가 연평균 가처분소득이 2만 유로가 넘었으나, 옛 동독지역의 도시 77개 가운데 6개만 2만 유로 이상이였다.

전체 도시의 연평균 가처분 소득은 2만3천295 유로였다.

연구소 측은 독일이 사회적 격차가 깊어질 뿐만 아니라 지역적 격차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40년 경력의 주인이 직접 수리함

부에나팍/플러튼/라하브라/애나하임

한미 자동차 바디/수리



Hanmi Auto Enterprise Collision & Repair



저렴한 가격 / 정확한 수리

- 무료 방문 견적
- 자동차 수리시 Pick up & Delivery
- Towing & Rent Car 알선
- 보험 수리 전문
- 노련한 바디맨의 완벽한 수리
- 최신 머신에 의한 Color Match
- FREE ESTIMATE



< 미국내 많은 메이저 보험 클레임 >

Cell 714.851.7556 4355 Artesia Ave. #D, Fullerton, CA 92833
714.680.9273 Dale + Artesia 플러튼 공항 뒤쪽(할주로)